

# 아야진 정보부대 인근 관광콘도 신축

## 부대측, 호송대 이전 백지화·해안훈련장 취소도 밝혀... 정보부대 이전추진위원회 '환영' 입장

### 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일부 '특수콘도' 우려도

아야진 주둔 정보부대가 휴양소 인근에 추가로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온 가운데(본도 9월 5일자, 제29호 보도), 최근 부대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광콘도를 신축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아야진 정보부대 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환)에 따르면

11월초 부대는 △호송대 이전사업 백지화 △해안 훈련장 설치계획 취소 △숙영시설 신축계획은 용도를 변경해 관광콘도 신축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아야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하는 사업임을 해아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전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지난 5일 정보사령관 앞으로 서신을 보내 "관광콘도 신축 사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결정은 해갈의 기쁨을 주는 생명수라도 같은 희망의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민들은 또 그동안 마을 곳곳에 내걸렸던 반대 플래카드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전추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은 "그동안 아야진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고성군과 부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광콘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부대가 신축하겠다는 '관광콘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운영

하는 통상적인 콘도 개념이 아니라, 청간정콘도나 화진포콘도처럼 군부대 가족들만 이용하는 특수 콘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전추진위원회 용광열 사무국장은 "이번에 약속받은 콘도 신축사업은 군부대 가족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야진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부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고성사랑연대 · 금강반딧불회 · 고성미래복지회 ·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연탄배달

고성지역 4개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고성사랑연대, 금강반딧불회, 고성미래복지회, 고성군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속초연탄은행에서 3천장의 연탄을 지원받아, 간성을 윤광현씨 등 5개 읍면 15가구에 각 200장씩 전달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 8일 눈이 내리는 곳을 날씨 속에서 고성사랑연대 박종락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 토성면 우승 · 현내면 준우승

### 제2회 고성군 노인복지회관장기 친선게이트볼대회

제2회 고성군 노인복지회관장기 친선게이트볼대회에서 토성면 분회가 우승을, 현내면 분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성군노인복지회관(관장 최중협)은 지난 8일 간성을 게이트볼장에서 5개읍면 게이트볼 선수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고성군노인복지회관장기 친선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날 대회는 최중협 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완식 노인회장의 축사와 시구, 예선



경기 및 본선경기, 결승전 및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고성군노인복지회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여가시간도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에 게이트볼만

큼 좋은 운동이 없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세대가 아름답고 정정당당한 모습이 확산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지난 4일 환경보호과 직원들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성지구협의회 금강산봉사회 회원들이 김병순씨의 주택 수리 작업을 하고 있다.

## 독거노인 주택 수리 해줘

### 환경보호과 · 금강산봉사회 · 거광전력

고성군이 부서별로 1명씩의 독거노인을 정해 '사랑의 지팡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환경보호과(과장 황영찬) 직원들이 독거노인 자매결연가 구인 김병순씨(거진읍 거진1리길 65-1)의 주택 수리에 나서 훈훈함을 전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김병순씨는 45㎡ 크기의 콘테이너에서 생활하는 탓에 그동안 더위와 추위로 인한 주거불편과 전기로 인한 화재가 우려됐었다. 이에 따라 이날 사랑의 지팡이 활동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해 보온용 판넬을 설치하고 전기 보수작업도 실시했다.

이날 집수리 봉사활동에는 환경보호과 직원 6명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성지구협의회 금강산봉사회(회장 신영종) 회원 10명, 그리고 거광전력통신공사(대표 김동집) 직원이 참여했다.

환경보호과는 특히 지난 4월부터 전직원이 참여하는 '행복실천'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 자율적으로 월 5천원~1만원씩의 성금을 모아 이번 독거노인 집수리 자재 지원비로 사용했다. 또 김치와 라면 등 생필품을 주 1회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호과 황영찬 과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지팡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밝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